



박원순(앞줄 가운데) 서울시장과 이해찬(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제로페이 확산에 최선 노력 다할 것”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의회 고위관계자들이 28일 미세먼지 문제, 제로페이 확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올해 처음 상반기에 개최된 만큼 서울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총 출동했다. 서울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서울시측에서 박원순 시장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광수 시의회 예정위원장, 서울시 주요 간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5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총 7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건 역시 미세먼지 문제”라며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각하기 때문에 (정책 도입) 제안 말씀을 드린다”며 “친환경 보일러 설

치 의무화 차량 2부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당과 정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경유차 저공해 사업, 친환경 차량 구매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특별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하기 위해 제로페이 총력 다하고 있다”며 “당에서 전국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안착되고 대세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도 지방세수 신장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가 감소해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흔히 서울시는 (재정도) 풍족하지 않나 하시는데 서울시도 재정자립도가 과거 90%에서 80%로 줄어 들었고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거의 꼴지”라며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원팀이며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라며 “제로페이 관련해서 (당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 소비자들을 위한 홍보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교류특별지구 조성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품위가 부족하다”며 “다른 나라 광장 같은 것도 참고해서 이번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좀 품위있게 제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며 당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때문에 법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시 철도망 구축 사업도 세밀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저상시내버스 예약해서 탄다

서울시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탑승 전 전화로 예약하는 ‘저상시내버스 예약시스템’을 4월1일부터 도입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다. 경사판(슬로프)도

운행 중인 3366 전체 저상시내버스가 대상이다.

그동안 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BIT)나 서울대중교통정보 앱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전기사와 이용자 간 소통이 어려워 교통약자가 대기 중인 걸 모르고 기사가 지나치거나 버스 정차 위치가 제

사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한다. 이후 상담원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정류소에 도착 예정인 3대의 버스 운전자 단말기(BMS)에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메시지를 받은 버스운전기사는 정류소에 교통약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고 지정좌석 안내, 도착지 하차까지 지원한다.

저상버스 예약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와 심야시간대(0시 이후)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혼잡시간은 장애인콜택시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6월부터는 카카오지도 앱과 PC버전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뉴시스

서울시, 내달부터 저상시내버스 예약시스템 도입

운전기사에 정보전송, 승하차 지원...3366대 적용

장착돼 있다. 교통약자용 지정좌석(접이식) 2석이 마련돼 있다.

“저상시내버스 예약시스템”은 이용자가 버스를 타기 전 정류소에서 버스 운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탑승 희망 버스를 미리 예약하는 제도다. 서울시내에서

각각 달라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용방법은 해당 정류소에서 네이버 지도앱이나 PC(베터버전)를 활용하면 된다. 도착예정버스를 확인하고 운행정보 클릭 후 각 버스회사 연락처를 터치하면 버스회

“오늘도 미세먼지 나뭇”

미세먼지농도가 나뭇을 보이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구급차 폭행 경고방송...비상벨로 구급대원 보호

서울시, 비상벨설비 2종류 구급차에 설치·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인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185명)였다.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주취자 폭행방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다.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다. 운전자는 즉시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차치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차치 공간 상로 간에 소통방식이 필요하다.

뉴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